

## 외국인투자유치 담당공무원과의 대화

FTA등 국제 환경에 대하여 국내적으로 내성을 키우고 구조조정을 해야. 저항이 있더라도 박차를 가해 나갈 것

여러분 노고에 대해 평소에 잘 듣고 있습니다. 변화라는 것은 우리 생존과 성공의 핵심적 조건입니다. 변화는 한편으론 두렵고 한편으론 힘든 일입니다. 80년대만 해도 외채문제가 심각했는데 외국자본이 우리의 국부를 수탈한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. 그로부터 10여 년 지났을 때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새로운 전략으로 외자유치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. 외자유치는 이제 경쟁력 강화와 성장 잠재력을 위한 전략으로 받아들여집니다.

눈이 어지러울 만큼 엄청난 변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. 그러나 우리국민은 어려움 속에서도 변화의 과정을 잘 겪어가고 있습니다. 외국인 투자 유치는 이제 경제 활력을 북돋우고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것이란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습니다.

WTO체제로 한국이 편입됐을 때 엄청난 저항이 있었지만 오히려 시장개방을 우리 실력을 키우는 전기로 만들었습니다. 금융시장의 획기적 개방이 이뤄졌는데 그 충격이 IMF의 일단의 원인을 제공하긴 했지만 한국경제의 시스템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 지금은 투자유치가 중요한 시기입니다. 하나하나 부딪힐 때마다 불안하지만 국민들이 잘 극복하고 있

습니다.

FTA 변화 환경에 부딪히면서 국내적으로 내성을 키우고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. 저항이 있더라도 박차를 가해 나갈 것입니다. 그런데 외국인 투자유치가 아직 원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.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. 원인이 무엇인지도 중요하지만, 지금 뭔가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.

대통령이 이 시기에 외자유치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할까 하는 걸 여러분들로부터 들어보고 싶습니다. 얘기하다보면 상호 의견이 교환되어 여러분들도 새로운 방법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. 이 자리를 통해 외자유치가 중요하다는 걸 다짐하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. 제가 이 자리에 참석해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자체가 외자유치 노력에 힘을 실어 주자는 뜻이 있습니다.

걱정이 하나 있습니다. 대통령이 앉아 있으면, 산자부 장관이 앉아 있으면 대화가 형식화하기 쉽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 앞에서 산자부 정책이 잘못되어 일선에서 힘들다는 얘기를 하기는 힘들 것입니다. 그러나 한 번 터놓고 얘기해봅시다. 괜찮겠습니까. 좋은 제안 있으면 채택해서 박차를 가하겠습니다.